■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잊어버리지 말라　　성경: 신명기 4장 1-9절

Tag:

1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2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3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4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5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6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7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8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9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신4:1-9)

9절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4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누가 살아 남는가?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자들
-누가 떠나지 않는가? 그 일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들
-어떻게 해야 잊어버리지 않는가?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할 때.

-이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는 것. 잊어버리지 않을 가장 좋은 방법은? 개신교는 주일을 성수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그래서 교회마다 주일성수를 소중한 가치로 지켜낸다.
-우리의 주일 성수의 목적은 헌금을 위함도 아니요, 율법주의도 아니요, 이기주의도 아니다.
-우리는 주일성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으려고 하고, 그 역사와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정부의 입장도 고려해서 지침을 잘 따르는 것.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물론 현재 한국교회가 최선을 다한다고 장담할 수 없다. 오히려 잘못하고 있는데 뭔가 크게 변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하리라. 실로 주일성수가 아닌 거대한 율법주의가 한국교회를 마비시키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다만 회개할 뿐. 다만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할 뿐.
-역사에서 지혜를 배울 수 있다. 9절의 말씀이 결론적으로 주시는 지혜. 역사에서 배워라.

거시적 역사, 미시적 역사;이 둘은 많이 다르다. 둘 다 목적을 가지고, 이념성향이 있다. 뭐든 해석하기 나름.
(거시사관;주로 정치 경제와 같은 다른 다양한 영역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서술함. 사회적 강자, 지배층 중심.
미시사관;거시사관에서 배제되거나, 축소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영역을 다룸. 약자, 민중의 역사, 소외계층의 역사)
흑역사;비하인드 스토리. 어쩌면 드러난 역사의 원인을 제공하는 역사. =뭐든 거짓말이 역사 이해에 치명적인 해를 가져다 준다.

무명의 한 외교관이 한국언론의 왜곡 행태를 빗대어 지어낸 말이 있다.
1. 예수가 위선적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 '독사의 자식들아'
-한국언론'예수, 바리새인들에게 욕설 막말 파문'
2. 석가가 구도의 길을 떠나자
-한국 언론 '국민의 고통 외면, 저 혼자만 살길 찾아 나서'
3.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이다
-한국 언론 '소크라테스, 악법 옹호 파장'
4. 이순신장군 '나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한국 언론 '이순신, 부하에게 거짓말하도록 지시, 도덕성 논란 일파만파'

현재 한국은 근현대사가 '이념 전쟁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거시적이지 않는 미시적인 해석도구를 이용해서 그런짓을 자행한다.
-왜곡, 편파, 누락, 편집, 심지어 악마적 편집 = 거짓말
진실된 기록과 전달도 중요하나, 진리에 기초한 해석이 더 중요함.

-우한폐렴과 관련한 중국인 입국허용; 자국민 보호 측면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청도의 대남병원에서 일하는 조선족 한명이 행방불명. 우한에 다녀 왔다고 함.
-앞으로도 중국과의 지속적인 우호 협력을 위해서라면 입국허용이 더 큰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음. 한국에 대한 선한 여론 형성. 대한민국 국위선양.
-마치 전쟁 치르듯 우한폐렴과 싸우는 정부. (교회를 적군 삼아서 문제)
-그러나 한국의 전염병 대응 매뉴얼은 세계적 수준. 선진국도 못하는 일.
-정확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한 말 때문에 이렇게 좋아졌음. 잘 하면서도 떨고 있음.
-한국교회는 다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음. 국민의 생명보호가 최우선이므로. (다만 악의적 보도가 문제 -이 또한 긍정적 측면이 있다. 매도 먼저 맞는게 낫다. 교회가 먼저 정신 차렸다. 다 하나님의 전략.)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대한 거시사관
-'지금, 천천히 고종을 읽는 이유' 김용삼 (전 월간조선 편집장)

-당시 1700~1800 은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 시대. 식민지 시대가 모두 잘못되었나? 그렇지 않다. 차라리 정복해서 문명을 가져다주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인 경우가 많다.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민족자결주의, 이후에 선린우호주의가 등장하면서 원주민에 대해서 그들의 삶과 문화를 보존해 주는 것에 가치를 둠. 그러나 이것이 과연 그들에게 최선일까?

-1800년대 당시는 영국이 패권국, 러시아가 패권 도전국
-영국은 러시아의 남진을 적극 저지
-러시아는 부동항을 찾아 블라디보스톡까지 진출 -후에는 모스크바

까지 철도 연결(러시아의 부동항 부심)
-영국은 한국을 통해 러시아의 남진을 막으려 했으나 완강히 거절. 쇄국의 길을 걷게 됨. 숭명배금. 유교적 사상. (창덕궁 대보단) 중화가 조선에 왔다. (지금은 비공개 지역이라고 함.-이런 것이 흑역사)
-영국은 일본이 타이완을 점령하자 위협을 느껴 청을 통해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게 함.(영국은 무조건 싫어하고, 청나라는 그래도 중국이라고 말이 통함.) 청나라가 나서서 미국과 우호조약을 맺게 함. 리홍장과 슈벨트가 중국 텐진에서 조선 수교-조선 관리 불참석. 헤프닝. 영어를 아는 사람 없음. 서로 단어의 뜻을 오해함.
-그러다 결국 영국은 일본을 통해서 러시아의 남하를 막으려고 함.
-일본은 한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까지 넘보려고 함.
-그런데 고종과 민비는 청국을 의지했다가 나중에는 러시아에 의존함.
-썩은 동아줄만 붙드는 셈.
-조선 왕족은 명나라만 끝까지 섬기고 청과 일본을 무시함.
-결국 패권국 영국이 일본의 손을 들어 주면서 고종은 꼼짝없이 한일합방을 당하게 됨.
-일찌기 개국하고 영국과 손을 잡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랬더라면 우리나라가 만주와 일본까지 먹을 수 있었을까?

-현재도 중국은 썩은 동아 줄, 미국과 일본은 든든한 동아 줄.
-지금 현 정부도 과거 고종의 시대와 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음. 그러나 무엇이 나중을 위한 일인지 아무도 모름.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심.
-얽히고 섥힌 한국의 현재 국제정세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 놀라우신 기적으로, 그 완전하신 지혜로 인도하실 것을 기도하자.
-현재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나라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셔서 통일을 주실 것이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